

구례에 전국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만든다

구례군, 90억 들여 마산면에 4만㎡ 규모 보호구역 조성 해설사 20여명 양성... 멸종위기 수달 보호대책도 추진

구례군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국내 최초로 조성한다. 반달가슴곰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처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환경부와 협력해 응답을 채취할 목적으로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전국의 반달가슴곰 50여 마리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반달가슴곰의 생츄어리(sanctuary·조수보호구역)를 만들어 인간과 동물이 함께사는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람과 곰이 공존하는 공간과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구례군은 이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산면 일원에 2023년까지 90억원을 들여 4만㎡ 규모의 '반달가슴곰 생츄어리'를 만든다.

올해 6800만원을 투입, 반달가슴곰 주민 해설사

를 양성하고 홍보용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반달가슴곰 주민 해설사는 국립공원연구원·민간단체인 (사)반달가슴곰친구들(대표 우두성)과 손잡고 20여명을 양성해 앞으로 만들어질 생츄어리 방문객과 각급 학교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곰과 연계된 지역 50여 곳에 홍보용 조형물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구례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심준식 구례군 환경교통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사업은 사람과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 모델로 미래형 환경운동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달가슴곰은 '가슴에 브라운색 하얀 털'이 있어 붙은 일변식 이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곰'이라고 불려왔다.

1982년11월16일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됐으며, 2012년 7월27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반달가슴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 간 280여억원을 들여 중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10월 말 현재 69개체가 지리산 일대에 활동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구례군은 반달가슴곰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에 대해서도 공존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한국의 도깨비는 어떤 이미지? 섬진강도깨비마을, 학술토론회



한국의 도깨비는 어떤 이미지일까?

5일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한국 도깨비를 이미지로 접근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오프라인 행사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섬진강도깨비마을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개최한 이날 학술토론회는 '한국 도깨비, 이미지로 접근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윤선 전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김성범 섬진강도깨비마을 총장이 '한국도깨비 이미지에 대한 고찰', 박미경 일본 교토대학교 문학연구과 강사가 '아동출판에 나타난 도깨비의 시각 표상', 김성구 전 국립경주 박물관장이 '한국 귀면의 변천과 그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진우 우물 컬렉터, 조준원 곡성문화원 박사, 최명덕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제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토론회에 참가한 김진우 컬렉터는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도깨비 형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여수시립박물관 설계작 확정 이순신공원 일원 내년 착공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설계 공모작(사진)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박물관 건립에 착수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여수시립박물관 건축설계 및 전시 제작·설치 공모 당선작을 선정,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9명이 참석해 후보작 3편을 심사했으며 아이에스피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크디자인의 공동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당선된 공모안은 기존의 공원시설과 지형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돋보이고,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시대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설계 공모작이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이순신공원 일원에 28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426㎡,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선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 내년 1월 출범

각계인사 10여명 발기인대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내년 1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이날 발기인 대회는 허석 순천시시장,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나승병 전 2013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전제영 전 순천시 부시장 등 1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취지문, 법인정관, 사업계획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채택했다.

이어 중앙부처·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저명인사가 참여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12월 초 창립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제정원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개최로 2만5000명이 넘는 고용효과와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3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순천시 제공>

포스코케미칼, 식수난 섬마을에 우물 파준다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사업 파트너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섬마을에 우물을 기증했다.

4일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과 화유코발트는 전남 여수시 울촌면 송도에서 우물을 기증 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우물을 기증한 송도는 70여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상수도 시설이 충분치 않아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포스코케미칼과 화유코발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공생펀드' 사업으로 우물 설치를 결정했다.

양 사는 배터리 소재분야의 사업협력을 기반으로 공생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매년 각 2만달러씩을 출연해 4만달러 기부금을 조성, 양 국의 지역사회와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1년씩 번갈아 지원하기로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